

“광주대표도서관 CFT 내부 용접도 결함 가능성”

〈콘크리트 충전 강관〉

붕괴원인·대책진단토론회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장스팬 (Long Span) 트러스 구조체와 함께 콘크리트 충전 강관 (Concrete Filled Tube·CFT) 내부 용접 결함 가능성에 제기됐다.

또 적용된 공법상 특수 구조물로 분류돼 건축 법상 구조기술사가 현장에서 검증을 진행했어야 하나, 공공발주 공사라는 이유로 배제됐다는 제도적 맹점도 드러났다.

22일 오전 10시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선 정준호 국회의원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주최로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원인·대책 진단토론회’가 열렸다.

‘공공발주 공사의 구조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한 김영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단순한 시공 실수가 아니라 구조 시스템의 특성과 관리 부실이 맞물려 일어난 참사”라고 진단했다.

정준호 의원·신수정 市의장 주최

김영민 건축구조기술사회장 진단

특수구조물 불구 ‘건설진흥법’ 적용

“구조기술사 현장 검증 의무 배제돼”

공개된 도면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분석했다는 김 회장은 광주대표도서관의 장스팬 트러스와 CFT 내부 용접 결함을 원인으로 짚었다.

그는 “장스팬 트러스의 대각선 부재 (部材)는 시공 과정에서 수백t에 달하는 인장력이 집중되는 핵심 부위”라며 “하중을 전달하는 접합부 용접에 결함이 있을 경우 국부 파괴가 전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러스 하중을 지지하는 CFT 내부에는 힘을 전달하는 판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간다”며 “용접 부위에 대한 검사와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원인·대책 진단 긴급토론회가 22일 정준호 국회의원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주최로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윤찬웅 기자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원인·대책 진단 긴급토론회가 22일 정준호 국회의원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주최로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주 공사라는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이 우선 적용되면서 구조기술사의 역할이 설계 단계에 만 국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공사에서는 구조기술사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설계 의도를 점검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발주의 경우 책임 주체가 분산돼 있다.

구조적 위험을 사전에 걸러내기 힘들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홍근 포유건축사 대표는 ‘우리네 건축 생태계는 국제적인가?’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설계 도면과 실제 시공 과정 사이의 관리 공백이 반복될 경우 구조 안전은 담보되지 어렵다”며 “특수 구조물의 경우 설계자와 시공 현장을 연결하는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조상근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와 김의용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단 위원, 김병철 국토안전관리원 호남본부장 등은 이번 붕괴 사고를 계기로 특수 구조물을 적용한 공공 공사에 대해 구조기술사의 현장 검증 참여를 확대하고, 용접 품질 검증과 가설 하중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준호 국회의원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는 데 이번 토론회의 의미가 있다”며 “신수정 의장과 함께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찬웅 기자



22일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12·29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유가족협의회·광주전남시민사회 활동 기자회견이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인명 피해 반복, 정부의 책임 회피·침묵 탓”

학동·이태원 등 참사 피해자들

제주항공 유가족과 원탁회의

선언문 작성…오는 28일 공개

제주항공여객기, 학동붕괴, 이태원입사 등 참사 유가족들이 ‘인명참사’가 반복되는 건정부가 침묵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22일 오후 2시 광주동구 전일빌딩245에선 ‘책임져야 할 국가의 부재와 부인’을 주제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재난피해자 원탁회의가 열렸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주기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원

탁회의에는 ▲대구 지하철 화재 ▲세월호 침몰 ▲학동 붕괴 ▲오송지하차도 침수 ▲이태원 압사 ▲삼풍백화점 붕괴 ▲아리셀 화재 등 8개 참사의 유가족도 함께했다.

이들은 “각 참사마다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근본 원인은 부실한 법과 제도, 책임을 분산시키는 행정의 구조, 사전 예방의 부재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순길 (사)·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참사 당시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국가가 밝혀야 할 것들을 피해자들이 대신 입증한 것”이라며 “제주항공 참사 역시 해당 부처나 정권의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구가 투명하게 과정을 공개하며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의 학동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유가족들이 마주한 것은 사고의 원인을 설명해 주는 국가도, 책임을 인정하는 정부도 아니라 침몰과 회피”라며 “국가가 재난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아닌 ‘관리하고 소모해야 할 사건’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의견교환 후 참사유가족들은 제주항공 참사해결을 위한 재난피해자선언문’ 작성에 착수했다.

참사 1주기 전날인 오는 28일 오후 7시 무안국제공항에서 진행되는 추모의 밤 행사에서 발표될 이 선언문은 ▲진상 조사 ▲책임이행 ▲재발방지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유가족의 바람이 담긴다.

한편 원탁회의에 앞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과 5·18 민주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찾아 현화하고 희생자를 추모했다.

/서형우 기자

115억대 불법대출 축협 지점장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1천500여만원 추징도

자신이 속한 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115억대 부정 대출을 받고 대가를 챙긴 축협 지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모축협 지점장 A(50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천만원, 1천5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모 저축은행 전직 은행장 B(60대)씨와 대출 브로커 C씨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선 징역 6개월·3년

·집행유예 2년·5년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매계약서 및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위·변조하고 허위 감정을 통해 광주모축협과 모 원예농협 등 금융기관 4곳에서 총 115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정 대출의 대가로 A씨는 1억여원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았으나, 골프 회원권 등 일부 뇌물을 정확한 금액 특정과 실제 사용 여부가 명확히 조사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B씨는 A씨 등과 공동으로 55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해 줘 소속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한 B씨와 C씨는 현재 또 다른 대출 비워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안재영 기자

학과 존폐 부담에 학생 대신 시험 치른 교수들 벌금형

학과 존립의 암울 속에서 자신들이 모집한 학생 등이 제적되지 않도록 시험을 대신 치러준 교수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와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사립 대학교 교수 3명에게 각각 15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학생들의 시험 단지를 직접 또는 조교를 시켜 대신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해 성적이 처리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교수들은 학교로부터 입학생 영입 등을 지속 요구받은 상황에서 학과 존립이란 암울까지 받자 자신들이 모집한 학생 등의 제적을 막고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고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 전지역 6만배송 (기타 낙후지역 배송비 추가 요금 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